



2011 석학 초청 특강

이 정 식 Chongsik Lee

---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

2011년 11월 9일, 16일, 23일, 29일

청운관 B117/오비스홀 111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Global Academy for Future Civilizations



UNIVERSITY LECTURE

## 초대

경희대학교가 석학 초청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 특별 강연은 학계와 지성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대해, 나라와 인류 사회의 더 큰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입니다. 역사는 내일이 태동하는 오늘의 뿌리입니다.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오는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현대사의 세계적 석학을 모십니다. 치열한 학자의 삶, 성찰적 지성의 삶으로 평생을 일관해온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명예교수 겸 우리 대학 석좌교수(Eminent Scholar)를 초빙해, 해방에서 6·25전쟁에 이르는 격랑의 한국사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잉태했던 이 시기,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 소개



### 이정식 李庭植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로 해방전후기를 중심한 한국 및 동아시아 현대정치사 연구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올린 정치학자, 역사가이다. 일제 하 1931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그는 주로 중국의 동북부(만주)에서 성장기를 보낸 다음 도미해 정치학으로 UCLA에서 학사학위를, UC, Berkeley에서 1961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미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및 미국인문과학협회의 한국학공동위원회의 위원장(1970-77)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외교연구소장 등을 겸임하면서 동아시아의 현대정치사, 특히 한국 현대정치사 연구에 몰두, 괄목할 학문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주요 영문 저서로는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1963), *Communism in Korea* (with Robert A. Scalapino, 1973),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2 vols(1973), *Revolutionary Struggle in Manchuria: Chinese Communism and Soviet Interest, 1922-1945*(1983),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 (1985), *Syngman Rhee: the Prison Years of a Young Radical*(2001) 등이 있으며, *Park Chung-Hee: A Korean Soldier*가 곧 간행될 예정이다. 이 책들은 『한국민족주의운동사』(1982),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3(1986-87) 일역 『朝鮮勞動黨小史』(1980), 『조선노동당 약사』(1986), 『만주혁명운동과 통일전선』(1989), 『한국과 일본』(1986), 일역 『戰後日韓關係史』(1988) 등으로 번역되었다. 주요 국문 저서로는, 『한국공산주의운동의 기원』(1961), 『김규식의 생애』(1974), 『서재필: 미국 망명시절』(1984), 『혁명가들의 항일회상』(1988),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2002),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2003),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 급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논으로』(2005), 『대한민국의 기원: 해방 전후 한반도 국제정세와 민족지도자 4인의 정치적 궤적』(2006), 『여운형: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2008) 등이 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의 탁월성은 Scalapino 교수와 공저인 *Communism in Korea* 로 1974년 미국정치학회 최우수 저작상(Woodrow Wilson Foundation Award)을, 그리고 1990년 제1회 위암(韋菴) 학술상을 수상한 데서 알 수 있다. 그의 냉철하고 균형 잡힌 역사서술은 오늘 한국 지식사회를 일깨우는 성찰의 목적으로 크게 울린다.



UNIVERSITY LECTURE

## 취지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  
산천도 빛이 나고/ 해까지도 새 빛이 난 듯/ 유난히 명량하다.”

시인 홍명희가 노래한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 힘으로 싸워 얻지 못한, 연합군이 준 “은혜의 선물” 해방은 아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였다.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에 따른 남북분단, 520만 명이 희생된 동족상잔 6·25전쟁, 그리고 냉전의 참여한 대결장화와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한 우울한 해방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로 다가왔다.

이렇듯 해방과 분단, 그리고 6·25전쟁은 비극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우리의 잠재력을 역사상 최고조로 발산하게 해 준 획기적 전환점으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볼 때 해방은 미국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해양지향의 열린사회로 급속히 진화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게 한 계기였으며, ‘남녀동권 사회’와 ‘타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꿀 만큼 성장하게 만든 희망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경희대학교는 한국현대사 분야의 세계적 석학 이정식 펜실베이니아 대학 명예교수를 초청해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라는 주제로 4차의 특강을 개최한다. 그들의 시대를 모르고 우리 시대의 앞길을 열 수는 없는 법. 격랑의 역사를 헤쳐 살아온 노학자가 거시적 눈으로 조망하는 해방후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징전비후(懲前毖後)의 지혜와 안목을 기르게 해 줄 것이다.

## 주제와 개요

#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解放後史)

### 강연 1 왜 스탈린은 한국분단을 고정화 시켰던가?

11월 9일

학문의 연구과정은 범죄 수색과정과 흡사한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나의 호기심이 스탈린의 한국 정책결정의 관건(Key)을 찾게 했다”고. 이 강좌에서 그는 민족사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국제사적 시야에서 어떻게 스탈린이 한국분단을 획책하였는지를 살펴한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북한에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이 내려진 이후 분단 고정화의 과정에 대한 그의 학문적 천착과 탐색의 과정을 들을 수 있다.

### 강연 2 중국의 내전은 한국분단에 종지부를 찍었다

11월 16일

소년시절 중국 동북부(만주) 지역에서 목격했던 국민당군과 팔로군(중공군) 사이의 내전이 한국의 분단에 미친 심대한 영향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숨겨진 사료를 찾아 구명한 학문적 탐구 과정을 들려준다. 1946년 5월, 만주에서 팔로군이 국민당군에게 쫓기게 되자 스탈린은 북한지역을 팔로군의 후방기지로 제공했다. 이로 인해 팔로군은 패배를 면하고 중국통일을 이룩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의 조치가 한국분단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그의 해석은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새로운 학설이다.

### 강연 3 미국과 한국전쟁 : 한국포기와 재개입

11월 23일

1947년 9월 29일, 미 국무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49년에 철수를 마쳤다. 3차 대전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 부담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에 개입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한국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 이 강좌에서는 미국의 수뇌부가 왜 한국을 포기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 개입했는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추이를 들려준다.

### 강연 4 6·25의 전화위복 : 대한민국의 발전

11월 29일

동족상잔의 참극을 빚은 6·25전쟁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룩될 수 없었다. 전화위복이었다. 국군이 팽창하고 내실화 했고,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통합되었고, 한미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컸다. 전쟁체제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의 조정과정을 필요로 했다. 6·25전쟁이 한국현대사에 미친 명과 암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라운드테이블

### 6·25 전쟁이 현대 한국사회에 미친 명(明)과 암(暗)

**이인호** 현재 서울대학 명예교수이자 아산정책 연구원 이사장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 대학·고려대학·서울대학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주 핀란드·주 러시아 대사, 명지대·KAIST 석좌교수,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대통령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1년에 러시아 외교아카데미로 부터 명예박사를 받고 2004년 비추미 해리상을 수상하는 등 실천하는 지식인의 길을 걸었다. 주요저서로는 『지식인과 역사의식』(1980), 『러시아 지성사 연구』(1987)가 있으며, 공저로는 『대화』(2007),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2009) 등이 있다.

**이주영** 현재 건국대학 명예교수이자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공동대표이다. 서울대학 사학과를 나와 하와이대를 거쳐 서강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컬럼비아 대학 사학과 객원연구원, 육군사관학교·서원대학 교수, 건국대학 대학원장·부총장, 역사학회·한국미국사학회·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경험을 통해서 본 서양의 역사』(2001), 『미국의 좌파와 우파』(2003), 『한국현대사 이해』(2008),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2011), 『이승만과 그의 시대』(2011) 등이 있다.

**김학준** 현재 단국대학교 이사장으로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대학교 총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동아일보사 사장 및 회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보정(金寶鼎)석좌교수 등 학계와 언론계에 걸쳐 폭 넓은 활동을 펼쳤다. 주요저서로는 『한국정치론』(개정판, 1990), 『러시아 혁명사』(개정판, 1999), 『구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 연구』(초판 2000; 개정증보판 2012), 『강대국권력정치 아래서의 한반도분할과 소련의 북한군정 개시』(2008), 『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2008),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2010), 『독도연구』(2010), *The Domestic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2010), 『한국전쟁』(초판 1988; 개정증보판 2010) 등 50여 권이 있다.

**도정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장이다. 책임은사회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각지에 어린이들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 들을 기획하고 건립한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한국작가회의 자문위원, 한국영상문화학회장을 지냈다.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대담-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대화>, <시장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 등을 썼다.

**허동현** 현재 경희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이다. 고려대학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건양대학 교수, 경희대학 교양학부장·학부대학 학장,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집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1999),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장면』(1999), 『근대한일관계사연구』(2000)가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역사 최전선』(2003), 『열강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2005),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2008), 『길들이기와 편가르기를 넘어』(2009), 『인문학 콘서트』(2011) 등이 있다.



UNIVERSITY LECTURE

## 프로그램

### 이정식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주 제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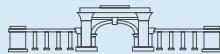
일 시 2011년 11월 9일(수), 16일(수), 23일(수), 29일(화) 15:00

장 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 : 허동현 (휴머니티스 칼리지)

일시		행사명	장소
11월 9일(수)	15:00~15:10	축사 총장	청운관 B117
	15:10~16:20	강연 1 스탈린의 한국정책 1945: 한국현대사의 탐색	
11월 16일(수)	15:00~16:20	강연 2 중국의 내전은 한국분단에 중지부를 찍었다	오비스홀 111
11월 23일(수)	15:00~16:20	강연 3 6·25전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	
11월 29일(화)	15:00~16:10	강연 4 6·25의 전화위복: 대한민국의 발전	오비스홀 111
	16:10~18:00	라운드 테이블 6·25전쟁이 현대 한국사회에 미친 명(明)과 암(暗) 패널 김학준, 이인호, 이주영, 도정일, 허동현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UNIVERSITY LECTURE

석학 초청 특강 University Lecture은 학계와 지성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대해, 나라와 인류 사회의 더 큰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입니다. 경희대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 정신으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학 초청 특강은 세계적인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실천인을 강사로 초빙해 우리 사회와 인류문명의 새로운 안목,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